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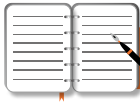
# Story 09

박 \* \* 화학공학부 2020년 졸

## 정식품 생산관리 분야 합격스토리

- ▶ **합격기업** 정식품
- ▶ **직무** 생산관리
- ▶ **스펙** 학점: 3.73  
토익: 765점 / OPIc: IM2
- ▶ **공모전** 공학교육혁신아이디어공모전(우수상)
- ▶ **봉사활동**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자원봉사
- ▶ **아르바이트** 통신관로 공사 (5개월)
- ▶ **기타** 학과 소모임, Grip
- ▶ **자격증** 화약류제조기사  
화공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AutoCAD 2급  
조주기능사





## 대학생활 스토리

### “자신만의 필살기를 만들어라”

모두가 완벽한 스펙을 가지고 취업준비를 하는 이 시기에, 남들과 똑같다면 인사담당자 입장에서 매력을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직무의 이해도가 점점 커진다고 말을 많이 하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필살기**를 만든 다음,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군대를 2학년 마치고 갔기 때문에, 저의 1학년과 2학년은 정말 무난했습니다. 특히 2학년 1학기는 3.22라는, 가장 낮은 학점을 맞았고 종종 면접관님들에게 많은 질문을 받았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꾸준한 학점관리는 중요합니다! 따라서 저는 군입대 전, 총 5개월 동안 통신관로를 매설하고 맨홀을 작업하는 현장 팀에서 근무했었고,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자원봉사를 했으며 스페인어를 배웠고 KT&G에서 카테일클래스를 이수하며 공부 뿐 아니라 **최대한 다양한 경험**을 쌓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군 입대를 한 후, 단순히 ‘배웠다’가 끝이 아닌, 이를 꾸준히 유지하기 위해서 입대 전 배웠던 스페인어를 꾸준히 공부했고 비록 낯지만, 공인 성적인 오픽NH등급을 받았습니다. 또한 카테일을 배웠기 때문에 조주기능사, 즉 바텐더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단순히 ‘나는 배워서 할 줄 알아!’가 아닌 배움을 확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으며 **‘눈으로 확인 가능한 자격증’**으로 풀어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저의 모습은 향후 제가 면접때마다 사용한 **‘끝을 넘어서 배움을 확장하는 지원자’**라는 슬로건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전역하고 나서 전공수업에 최선을 다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떤 전공수업도 중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시험보고 학점받기용이 아닌, 진짜 공부를 하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기사자격증이나 전공PT면접에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기업직무의 이해라는 수업을 들으며, 한화재작자의 특강을 통해 한화라는 목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처음부터 한화라는 기업을 선택한 후 이 기업을 목표로 단계를 세워보았습니다.

### 첫 번째는 기사자격증입니다.

화약을 다루는 회사이기 때문에 화약관련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고, ‘화약류제조기사’라는 생소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공부했습니다.

### 두 번째는 체험단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서포터즈나 블로그기자단, 체험형인턴을 모집하듯 한화에서도 체험단을 모집했기 때문에 기업에서 진행하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최우수 체험단원에 선정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목표를 먼저 설정했기 때문에 저만의 필살기를 만들 수 있었고, 기초를 다진 상태에서 제가 희망하는 직

무인 '생산관리'를 이해하기 위해 더욱 빠르게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생산관리 직무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가장 필요한 역량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 상담과 특강을 통해 '**전공과 공정, 직무의 이해**'라고 생각했으며 학업을 통해 알지못한 부분을 공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가장 먼저 공정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엔지니어링개발연구센터(EDRC)**의 원격교육원에서 필요한 수업을 찾기 시작했으며 공정의 세부설계에 관한 이론을 갖출 수 있는 'Process Synthesis & Design'을 이수했고 화공플랜트의 지식을 배울 수 있는 'Petrochemical Process Design'을 배웠습니다. 또한, 전공지식을 인정받기 위해 화공기사를 취득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학교에서 알려주지 않는 생산관리 이론을 접해보기 위해 **한국 생산성본부**에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관리 실무'를 이수했습니다.

이렇게 한화라는 목표를 설정한 후, 필살기를 만들었고 생산관리 직무를 위해 다양한 역량을 갖추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모든일이 순조롭지 않기 때문에, 한화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 2019 하반기 공채준비

저는 이번 하반기를 준비하며 가장 큰 목표는 '한화 화약/방산 생산관리'를 설정하였고, 방학때 학교에서 진행한 **취업에이스**를 통해 삼성인적성검사인 GSAT을 7월에는 일주일에 3회, 8월부터는 매일같이 1회분씩 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틈틈이 기업분석을 하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저의 인생을 1학년때부터 지금까지, 매 달마다 했던 활동들을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놓는다면 어떤 경험이 '도전적인 경험'인지, '헌신적인 경험'인지 등을 쉽게 생각할 수 있으며 각 경험마다 스토리를 500자에서 700자로 정리하면 자기소개서를 쉽게, '**양산형 자소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에, "지원하게 됐습니다"는 너무 수동적인 표현이니까 "지원했습니다"로 적으세요! 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문장하나로 합불결과가 바뀔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최대한 많은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고 항목이 비슷한 내용들은 복사 붙여넣기 해서 양을 최대한 늘리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 있지만

**36개 서류제출 - 9개 서류합격 - 4개 최종면접 - 1개 최종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말 진심으로 가고싶은 기업이 있다면, 그 자기소개서 만큼은 영혼을 담아서 쓰되, 최대한 많이 제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적어도 서류합격률은 30%이상을 만드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무리 모의면접을 많이하더라도 실전이 가장 큰 연습이기 때문에, 면접은 되는대로 많이 봐보는 것이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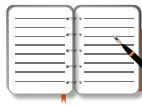
삼성, 한화, OCI, 정식품 네 개의 최종면접을 경험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과 맞는 산업, 자신과 맞는 직무 라고 생각합니다.

평소 반도체에 전혀 관심이 없었지만 '삼성전자 파운더리사업부 공정기술'을 준비하며 4일준비한 반도체 지식으로 면

접을 봤지만 당연히 탈락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제가 열심히 필살기를 준비한 한화에서도 2019년 하반기 공채에서 뜬 직무는 제가 기다리던 '생산관리'직무가 아닌 '연구개발'직무였기 때문에 준비했던 역량을 전혀 보여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맞는 직무를 지원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어찌보면 '한화 생산관리'를 커다란 목표를 위해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이렇게 बे지밀을 만들려 정식품으로 옮긴게 됐는지도 모릅니다.

**꼭 '필살기'를 만들고 자신에게 맞는 산업과 직무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 자기소개서 (정식품)

**성장과정을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심, 목표가 되다

어렸을 때 부터 현장 감독을 하시는 아버지를 따라 여러 지역의 현장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중학생 때, 버려지는 펜과 샤프를 결합하는 샤프만들기 라는 취미를 가지게 되었으며 이때부터 무엇인가를 만드는 것에 대한 재미를 느꼈습니다. 친구들의 너는 공대나 가라! 라는 말을 들으며, 현장과 제조업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함께 공과대학의 꿈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화학공학전공을 선택하고 6년간의 기간을 토대로 정의해 보았을 때 생산관리엔지니어는 최적의 라인밸런싱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해야 하며 설비확인, 안전점검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제너럴리스트입니다. 또한 정확한 판단하에 재빠르게 위기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러한 능력은 연습이 아닌, 다양한 경험과 습관을 통해 얻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총 6개월의 사회경험과, 10개의 팀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재빠르게 위기 상황을 대처하며 실제 현장에서도 막힘없이 업무를 수행해나가겠습니다.

**성격의 장·단점을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작은 반이 아니다

저는 시작하면 끝을 넘어서 배움을 확장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부터 피아노를 배우며 음악에 관심을 가졌고 밴드에서 기타를 맡아 공연을 준비하며 입상은 물론, 라디오에 출연하는 등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기타뿐 아니라 드럼, 베이스 등 다양한 악기까지 골고루 배워 All Round Player 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밴드활동을 하며 성

과를 낸 이후부터,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빠르게 적응하여 배움을 확장하는 특성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8개월의 고깃집 아르바이트를 통해 고기 굽기에 능하며 조주기능사를 취득하여 다양한 소맥과 칵테일을 연마하였습니다. 또한 이발병시절에 헤어 커트를 배웠으며 현재까지도 친구들과 가족들의 두발정리를 돕습니다. 이는 정식품이 원하는 경쟁력있고 열정적인 모습과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입사 후에도 주어진 일을 완벽히 나의 것으로 만든 후, 이를 넘어 더욱 성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차별화되는 본인만의 핵심역량은 무엇인지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관리엔지니어는 공정에 대한 이해는 물론, 최적의 라인밸런싱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해야 하며 정확한 판단하에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체너럴리스트가 되어야 합니다.

PFD와 P&ID, 전체적인 공정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공정제어'를 이수하며 공정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EDRC에서 Process Synthesis & Design 과 Petrochemical Process Design 을 통해 공정의 세부설계에 관한 내용을 배웠고, 이를 기반으로 Ammonia Plant를 설계하는 캡스톤디자인에서 A+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생산성 본부의 생산관리 실무이론 을 이수하며 실제 현업에서 사용가능한 이론에 대해 배웠습니다.

화공기사의 단종류 실험을 준비하며 장치공정에서 발생 가능한 Leak, 수율 등의 문제를 어떻게 감소시켜 정밀한 값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꼼꼼하게 관찰했기 때문에 오차를 20%에서 5%까지 줄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바탕으로 생산관리엔지니어의 직무를 이해하며 꼼꼼함을 강점으로 승화하겠습니다.

## 도전했던 경험과 이를 통해 얻은 성취는 무엇인지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9살 여름, 그리고 뜨거운 현장

대학교 1학년, 통신관로를 매설하고 맨홀을 작업하는 현장팀에서 일했습니다. 전에 일하던 또래 남자아이가 일이 힘들다며 이틀 만에 그만뒀던 탓에 저를 보는 시선이 달갑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1주일 동안 빠르게 적응해서 딱 1인분만 하자! 를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베테랑들 사이에서 민폐를 끼치지 않고 현장팀에 금방 적응하기 위해 새벽 일찍 출발하여 현장소장님이 오기 전까지 필요한 연장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또한, 해야 할 일 check-list를 만들고 반생이, 빠루, 깔깔이 등 현장용어를 전부 적어서 외우며, 시키기 전에 먼저 일을 찾아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한결같은 모습으로 노력하자 점점 막둥이라고 불러주시며 먼저 찾아주셨고 총 5개월 동안 일손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웠던 공사현장에 끈기있게 도전한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배울 수 없는, 땀을 흘리는 현장을 직접 경험해보자! 사무실과 현장팀 사이에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중재하는 현장소장님을 보조하며 소통과 교감을 지닌 엔지니어의 모습을 보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 협업, 팀워크를 통해 달성한 성과를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진행하는 캠프에서 다양한 친구들과 팀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제일 지식이 많고 아이디어를 제안했으며, 기술자 역할을 맡은 한 팀원이 중도에 하차하여 다른 조와 달리 3명의 인원으로 감당해야 하는 많은 일과 부족한 기술력, 시간 때문에 모두의 사기가 저하됨을 느꼈습니다.

협업은 소통과 협업의 공존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유기농 농가를 위한 해충 및 유해조수 퇴치 기업을 주제로 기획자를 맡아 전체적인 목차 구성과 PPT 제작을 했고 각자의 전공에 따라 자료조사 분야를 나눴습니다. Appendix를 6번까지 제작하고 질문 분야에 따른 담당자를 정해 Q&A의 전문성을 향상했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 이외의 시간에는 서로에 대해 알아가기 위해 집중하여 불만과 갈등을 최소화했습니다.

인력과 기술력 부족문제를 끊임없는 소통 과 철저한 분야를 통해 해결하여 끝까지 노력했기 때문에 후회 없이, 성공적으로 캠프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지원동기 및 입사 후 포부는 무엇인지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회사선택 기준은 다양한 미래 먹거리를 가진 놀부 같은 모습입니다. 다른 경쟁사가 따라올 수 없는 독자적인 기술과 제품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확보한 후 사업구조를 다각화한다면 수직계열화 등,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식품의 가장 큰 강점은 베지밀 이라는 독자적인 브랜드를 기반으로 사업구조의 다각화를 지향하며, 식품산업의 특성상 해외사업으로의 확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생산관리엔지니어로서 저의 역량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곳 정식품의 계열사인 자연과 사람들에 지원했습니다.

향후, 중남미시장은 모든 산업 분야에서 블루오션이며 한류열풍으로 K-food 또한 열풍이기 때문에 꼭 잡아야 할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스페인어의 역량을 더욱 갈고 닦아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갈 수 있으며 회사에 직접적인 수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엔지니어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 입사지원경험 (정식품 생산관리)

#### 가. 면접후기

##### (1) 1차 면접

제가 지원한 곳은 담양공장이었기 때문에, 담양에서 1차 실무진면접을 진행했습니다. 풍산, 애경산업 등 다양한 기업에서 면접을 진행했지만 대부분 1차 면접은 '나를 필요로 하는 팀장님'께서 면접을 진행하기 때문에 지원한 사업장

에서 주로 면접을 진행합니다. 이때 전날 이동할지, 당일에 이동할지 잘 결정해야 합니다. 아무리 면접을 정말 열심히 준비해도 준비한 질문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컨디션을 좋게 만들어 '말을 잘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용공고의 우대사항에 '식품공학 우대'라고 적혀있었기 때문에, 각종 지역에서 식품공학 전공자들이 많았습니다. 총 8명의 지원자가 있었으며, 저만 화학공학전공자였기 때문에 주눅이 들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종합격까지 한 것을 보면 전공보다는,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더 중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 질문내용

- 3정 5s에 대해 말해보아라
- 입사했을 때에 원하는 기업문화는?
- 어떤 선배들이 있었으면 좋겠나?
- 회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있나?
- 전공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 (2) 2차 면접

서울 본사에서 진행한 2차 면접을 진행했으며 3명의 지원자가 있었습니다. 최종면접은 임원면접이기 때문에, 어떠한 질문을 받을지 몰랐기 때문에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숙지하기 위해 노력했고 평소 모의면접을 하며 지적받았던 '외운 티'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 물어본 질문

- 머신러닝에 대해 아는가?
- 공유경제에 대해 설명해보아라
- 현장경험이 있다고 적혀있는데, 어떤 계기로 하게 되었나?
- 이력서에 적어놓은 팀프로젝트에 대해 자세히 설명좀 해달라
- 생산관리엔지니어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역량은??
- 이 중에서 본인을 뽑아야 한다면, 그 이유는?
- 가장 절실했던 순간이 언제인가?
- 이 중에서 본인을 뽑아야 한다면, 그 이유는?
- (경력자에게) 가장 자신과 안맞는 팀장은 어떤유형인가?
- 지역이 집이랑 좀 멀 수도 있는데 괜찮나?

#### 나. TIP

면접은 자신이 외워온 답변을 말하는게 아닙니다. 대화입니다!! 평소 면접을 준비할 때, 쿡 찌르면 쓱 하고 답변 나오도록 연습했지만, 모의면접을 하며 항상 '너무 외운티가 많이난다' 준비된 답변이 티가난다'라는 지적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면접중에서도 특히 임원면접은 긴장하지 않고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취업을 준비할 때에, 자기소개서 합격하면 인적성 준비하고, 인적성 준비하면 면접을 준비하는 것이 아닌, 모든 것을 '병행'해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